

능곡동

친구야! 꿈 잡(job)으러 가즈아~~~

글 유금주 사진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능곡동은 2013년도 마을자원조사 후 청소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꿈자락(樂)'이라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구야! 꿈 잡(job)으러 가즈아~~~'란 주제의 진로적성 토크콘서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7월에는 내 성격과 적성을 찾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원예 치료사 직업을 주제로 2단 플라워박스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향기가 좋은 비누꽃으로 꽃꽂이를 하고 편지와 사탕, 초콜릿으로 달콤한 마음을 선물하니 기분도 좋아진다. 7월에는 기자라는 직업을 주제로 사진찍기 및 인터뷰에 대해 배웠는데 아이들이 서로를 찍으며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미래직업에 대해서도 배웠다. 3D 프린터 펜으로 코딩해 소품과 안경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프로그램에 임했다. 능곡동 주민자치

위원들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꿈 꿈을 찾는 즐거움(樂)
자 자아실현
락(樂) 즐기go, 나누go, 행복하go

오늘도 능곡동에서는 함께 하는 꿈자락(樂)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발산동

작은 동네 축제 '체조는 아무나 하자'

글 김남수 사진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발산 야외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 야간 체조 교실 '체조는 아무나 하자'가 화제다. 시간이 되면 사방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여 흥겨운 음악에 맞춰 전문 체조 강사의 지도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

이 행사는 작년부터 동구보건소와 국립암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다. 2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목요일 모임이 어느덧 40여 명으로 늘면서 '매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부터 화요일을 추가했다.

'요일을 늘이면 주민이 올까?'라는 생각은 기우였다. 현재 70명 이상이 참석하는 달밤의 동네잔치로 거듭났다. 이에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체조 이후 야외극장을 시행하는 등 주민이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정발산 달빛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의 협조를 얻어 영화 '명량'을 무료로 상영했다.

이를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나서 주변 방역을 하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서 간식을 제공하는 등 직능단체의 협조가 있었다.

진윤숙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웃 간의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는 데 좋을 듯하여 행사를 기획했다. 호응이 좋아 가을에 정발산 달빛극장을 다시 마련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시원한 밤에 체조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도 볼 수 있는 정발산동 작은 동네 축제 '체조는 아무나 하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바란다.





풍산동의 버스정류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걱정이 없다. 부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풍산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던 끝에 20여 곳의 버스정류장에 부채를 비치했다.

올해는 47곳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정류장에 부채를 거는 모습을 보니 풍산동의 부채 바람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절로 시원해진다.

풍산동의 부채는 만들어질 때부터 남달랐다. 단풍나무골 풍(楓)산동의 멋을 살려 미술을 전공한 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해 단풍잎이 예쁘게 그려진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능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인 우리 마을에서는 이것 또한 자랑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부채를 걸어놓는 게 쉽지는 않았다. 부채를 걸어 놓고 뒤돌아서면 없어지고, 걸고리까지 뜯어가서 허탈하기도 했다. 그래도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부채로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는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한가득 부채를 들고 버스정류장을 찾는다.

부채를 걸고 있다 보면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그때마다 “우리 동네의 부채가 예쁘고 튼튼해서 바람도 잘 난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는 요즘 시원함을 선물해 주는 단풍골 부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풍산동



버스정류장에서 술술 부는 단풍골 부채 바람~

글 김미령 사진 풍산동 주민자치회



일산2동

사랑의 감자 수확 체험 및 나눔 행사

글 조태순
사진 일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일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들과 함께 올해 3월 중산동에 있는 텃밭에 감자를 심었고, 7월에는 사랑의 감자 수확 체험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작년까지는 주로 고구마를 수확해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분들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작물을 감자로 바꾸고 유치원생들과 함께 체험 행사를 진행해 수확의 기쁨과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운 날씨임에도 원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감자를 심었다. 아이들은 수확한 감자를 품에 안으며 엄마한테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을 거라며 행복해했다. 더불어 제법 많은 양의 감자를 수확해 관내 경로당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뿌듯했다.

그리고 작년에 수확한 고구마와는 달리 감자는 수확하는 시기가 빨라 텃밭을 활용할 수가 있어 7월 말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비를 착용하고 주변 잡초제거와 함께 들깨 모종을 심었다.

몇 달 후 ‘풍성한 깻잎으로 김치를 담글까?’, ‘들깨를 수확하여 기름을 짤까?’ 아니면 ‘견과류를 넣고 들깨강정을 만들까?’ 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로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다.

